

9월 17일
빙겐의 성녀 힐데가르트 동정 학자

동정녀 공통 690면, 또는 성인 성녀 공통: 수도자 700면.

제1독서

〈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.〉

아가의 말씀입니다.

8,6-7

- 6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가슴에,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팔에 지니세요.
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저승처럼 억센 것.
그 열기는 불의 열기, 더할 나위 없이 격렬한 불길입니다.
- 7 큰 물도 사랑을 끌 수 없고 강물도 휩쓸어 가지 못한답니다.
누가 사랑을 사려고 제집의 온 재산을 내놓는다 해도
사람들이 그를 경멸할 뿐입니다.
주님의 말씀입니다.

화답송

시편 45(44), 11-12, 14-15, 16-17(◎ 11ㄱ 또는 마태 25,6ㄴ 참조)

◎ 들어라, 딸아,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.

또는

◎ 신랑이 오신다. 주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가라.

또는

◎ 알렐루야.

○ 들어라, 딸아,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.

네 백성,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.

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.

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

그분 앞에 엎드려라. ◎

○ 화사하게 한껏 꾸민 임금님 딸이

금실로 수놓은 옷에 싸여 안으로 드는구나.

오색 옷 단장하고 임금님께 나아가는구나.

처녀들이 뒤따르며

동무들도 오는구나. ◎

-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
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.
당신 아들들이 조상의 뒤를 이으리니
당신이 그들을 온 땅의 제후로 삼으시리이다.
- ◎ 들어라, 딸아,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.
또는
- ◎ 신랑이 오신다. 주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가라.
또는
- ◎ 알렐루야.

복음 환호송

마태 5,8

- ◎ 알렐루야.
- 행복하여라,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! 그들은 하느님을 보리라.
- ◎ 알렐루야.

복음

〈신랑이 온다.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.〉

✦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25,1-13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.

- 1 “하늘 나라는
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.
- 2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.
- 3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.
- 4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.
- 5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.
- 6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.
‘신랑이 온다.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.’
- 7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,
- 8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
‘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.’ 하고 청하였다.
- 9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
‘안 된다.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.’

하고 대답하였다.

- 10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.
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, 문은 닫혔다.
- 11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
'주인님, 주인님, 문을 열어 주십시오.' 하고 청하였지만,
- 12 그는 '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.' 하고 대답하였다.
- 13 그러니 깨어 있어라.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."
주님의 말씀입니다.

* 이 전례문은 주교회의 2021년 춘계 정기 총회의 승인을 거쳐 사도좌 추인(2021년 4월 17일, 경신성사성, Prot. N. 164/21)을 받았습니다.